

가깝고도 먼 '중국불교' 확인

예소무원 中 종교국장 방한, 복수비자 문제 '우호적' 달라이라마 '맹비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예소무원(葉小文)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장이 8월 24~27일 방한해 한·중 불교계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했다. 예소무원 국장의 이번 방한으로 '달라이라마 방한' '중국복수비자 문제' 등을 대하는 한국 불교계와 중국정부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양국 불교교류 확대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예소무원 국장의 이번 방한은 동국대로부터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다. 동국대가 지난 4월 37개국 10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세계불교포럼'을 주관해 세계불교의 교류마당을 마련한 공적을 인정 받은 것이다.

24일 첫 일정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예소무원 국장은 "한국스님들의 중국 복수비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통 큰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나 동국대에서 "달라이라마는 분열주의자"라며 맹렬히 비난하면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열망하는 한국불자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최근 한·중 불교계의 인적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님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복수비자 발급문제를 해결하는데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예소무원 국장은 "비자 문제는 외부부의 관할이고 '공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라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은 예소무원 국장(가운데)에게 봉정사법 법화경 1절을 선물로 전달했다. 사진=조용수 기자

"공민의 권리"란 표현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래 종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를 강조해온 중국 공산당의 정책논리.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체제안정을 위해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등에게는 복수 비자를 발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잠시 후 예소무원 국장은 중국 광주 남화사 주지스님의 친필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이 지관 스님의 중국방문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 외부부와 상의해 지관 스님의 복수비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시급하게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예소무원 국장의 발언은 한국스님들의 복수비자 문제를 종교국이 책임있게 풀어 나가겠다는 사실상의 확인인 셈이다. 이날 지관 스님은 "조계종은 신라 도의국사의 행적비를 공공산 보호사에 건립하고 있다"며 "2007년 말까

지 기념비를 완공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각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다.

한편, 예소무원 국장은 자신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린 동국대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달라이라마는 해외에서 조국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한국 정부나 국민들도 중국인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후 대교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김명근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을 설명하고 한·중 불교교류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제 군중특별교구 뿐만 아니라 개사찰에서도 군법당과 자매결연을 해 적극 나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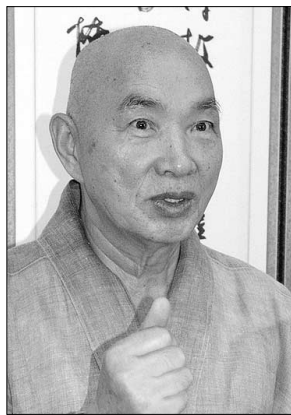
△포교원 산하단체에 대한 생각은? -산하단체의 안정적인 포교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가 불교상담개발원의 '자비의 전화'나 중앙신도회의 '날마다 좋은 날' 법인 설립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각 지역의 지부 활성화를 하지 못한

했다. 지관 스님은 "종교인으로 경제문제에 대해 깊은 식견은 없지만 국민들과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잘안다"며 "다만 한미 FTA를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 특히 농촌 사람들은 이를 감내할 여력

"군·어린이 포교에 중단 전체 나서야"

포교원장 임기 마친 도영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9월 4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종단 사상 처음으로 포교원장 5년 임기를 채운 도영 스님 퇴임의 변을 8월 19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완주 송광사에서 들어왔다.



△퇴임 소감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포교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더 부쩍했다.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임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중점은? -신도 교육체계를 갖춘 것이다.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은 계를 받고, 신도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등 체계화했다. 그 다음 1년 이상 불교대학의 인가제 전환을 들 수 있다. 신도 기본·전문교육에 부족했던 각종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했다.

△포교 활성화에 대해 조언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포교원장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다. 총무원에서 포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교 관련 인사고과제를 실시해 반영한다면 어린이·청소년 불교의 대안을 군 포교에 뒀다. 그 결과 군중특별교구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제 군중특별교구 뿐만 아니라 개사찰에서도 군법당과 자매결연을 해 적극 나서야 한다.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향후 계획은? -포교원장을 비롯해 9년 동안 종단 소임을 맡으며 봉사해왔다. 이제 송광사에 내려와 지역불교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 송광사를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비구니 계율' 심포지엄 개최

전국비구니회 10월말 전문가 초빙해 '대토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국내외 계율전문 학자들을 초청해 '비구니 계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비구니회는 8월 17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명등한 비구니 계율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세워 나가자는데 합의하고 오는 10월말 '비구니계율'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성 스님은 "시대가 변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강화됐음에도 무조건적인 차별조항이 가득한 비구니 계율은 전연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해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비구니 계율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들을 초청해 비구니 계율의 근본정신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최 예정인 심포지엄에서는 불명사 율원장 묘연 스님과 비

구니 회장 명성 스님의 특강, 국내외 계율 전문 학자 특강, 비구니 계율의 근본정신과 의미 및 적용 과정에 대한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실장 혜원 스님(동국대 석학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은 계율 전문가들을 초빙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비구니계율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는 비구니 팔계계법의 재해석과 함께 현재 중점문제에 들어있는 비구니 차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될 것"이라고 말해 심포지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혜원 스님은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은 9월 14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비구니 스님들이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외국 유학생들의 장학제도 지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일 기자

'간화선' 집에서 DVD로 배운다

조계종 포교원 동영상 보급

간화선 주요 내용이 초심자, 재가 불자들을 위해 동영상(DVD)으로 제작됐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작한 간화선 DVD는 30분 분량으로 간화선의 역사, 실참수행법, 선원장 스님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판 외에 영어 더빙본을 제작해 간화선 해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화선 DVD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7개월간 제작됐다. 총주 석종사 금봉선원을 배경으로 실제 수행스님들이 출연했으며 동화사 금명선원, 상원사 용문선원, 백담사 무궁선원, 도의 국사 수행사 진전사, 해인사, 월정사, 화계사 등지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포교원측은 "교구분사 및 템플스테이 운영시설 등 주요시설과 선 포교사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우선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서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 연다

8재계 수계실천대법회가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양산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는 행사는 올해로 4년째 열린다. 2000여명의 포교사 및 일반불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 강의, 예불, 8재계 수계법회, 법인장사 선원장 설우 스

님 강의, 촛불행진(사경지 소자), 철야 정진(천수경·108참회문·금강경, 새벽예불 및 몸풀기, 아침공양, 지역 단종보, 품수식 순으로 진행된다.

양성홍 포교사단장은 "8재계 법회는 재가불교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자질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바람직한 포교사의 조직·운영·관리를 위한 소양을 함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해의 스님 장학생 7명 선발 조계종, 학비지원 등 '관리'

조계종 교육원은 8월 23일 회의를 열고 2006년도 해의 장학생에 지우

원영 보적 공해 법경 동호 해강 스님 등 총 7명이 선발됐다.

조계종은 매년 해의 정규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스님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FTA 체결 지원 당부" 한덕수 위원장 지관 원장 방문



대통령직속 한미 FTA체결 지원 위원회 한덕수(경제부총리) 위원장이 8월 22일 오후 3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한미FTA 체결에 대한 종교계의 지원을 부탁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저점 여시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연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제6기〉 창조적 리더십의 불교지도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사원과 종단, 사업과 언론·정치·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 여러분, 창의적 정신과 도전적 리더십으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모집안내		교육일정			
모집인원	• 40명 내외	일 자	초청강사	강의제목	소 속
지원자격	• 각 불교종단의 지도자급 이상 스님	9월 6일	월운스님	반아 중관사상과 불교적 지혜	동국대포교원
	• 불교신도로서(공·사기)업체 회장·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 각 기관 고위 공무원, 각 군의 장성,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9월 13일	김형호	불교의 철학적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9월 20일	박세일	대한민국의 선진화: 국가발전과 전략	서울대 교수
	• 일시: 2006년 8월 1일 ~ 8월 31일	9월 27일	공병호	리더의 자기경영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2:00	10월 3일	김형준	신화로 본 인도사상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10월 10일	조용길	대·소승비판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10월 17일	정우택	불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동국대 박물관장
		10월 24일	김명국	협상으로 이해하는 갈등	K&P Consulting Co.대표
		10월 31일	조동성	지속가능경영	서울대 교수
		11월 7일	이원철	건강과 이병(未病)의학	동국대학교일신한방병원장

〈제2기〉 아름다운 프로!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FBA (Funeral Business Academy)

"장례비즈니스의 전문성이 더욱 절실한 시대, 죽음 관련학과가 세계 주요대학의 인기학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가장 유망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프로의 날개를 다십시오!"

교육과정	
▶ 교육기간:	1년
▶ 수업시간:	매주 월·화요일 18:30~21:20
▶ 교과과정:	이론 및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 (전문 분야의 특성과 다양한 실습, 견학, 연구 프로그램 포함)

입학안내	
▶ 모집인원:	25명 내외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일정:	- 원서교부접수: 2006년 8월 31일까지 - 전 형 일: 개별통보
▶ 입학특성: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FBA 수료생 수에(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해외 관련업체 연수(자비), 장례비즈니스 관련한 다양한 인적교류의 네트워크지원 및 확대기회제공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http://graduate.dongguk.edu/bs TEL. (02)2260-3098 / FAX. (02)2277-1274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